“모든 것이 나의 업…여생을 오직 남을 위해 살겠다”

윤 을 암 백천사 신도회장

한국 불교 포교 · 전법의 대법사
장묘문화 조상위패 대중화 구현
포교 정체성 확립 문서포교 실현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 복지 구축
불교 탄압과 시련 국가 위기 초래
호국불교 이념 고취 국태민안 기원



△ 윤을암 신임 ‘한불련’ 중앙신도회장은 “오직 부처님을 시봉하고 불법을 홍보하며 중생구제와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남은 여생을 화향하고 불교의 중흥과 함께 사회복지 구현에 용맹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조계사 경내〉

존경하는 전국 불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백만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이하=한불련) 종단대표자와 관계 임원 및 전국 신도여러분!

부족한 제가 ‘한불련’ 중앙본부 전국신도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전국 법인종단 큰스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포교사 직원들과 신도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포교전법사 생활 10년만에 전법,기도,포교의 요람인 ‘한불련’에 몸담고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할수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되 “마음에 한 생각 일으키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체법은 모두 다 마음으로 지었으니 심지어 천당이나 지옥도 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이란 무심(無心)으로 공부하여 온갖 인연을 모두 버리고 분별망상을 버리는 것이며, 이와같이 공부하여 행할 때 삼라만상에 부처님의 진면목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불자 여러분!

‘한불련’은 현재 348개 종단이 가입된 한국불교 최대 법인단체이며 소속 승려 5천여명과 신도 1백만이 가입된 단군 이래 최대 단체이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견인하고 한국불교의 최고 정점에서 부처님의 대승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단체에 첫 ‘한불련’ 전국 중앙신도회장 직을 맡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준비과정은 무척 다사다난했고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20년간 예토세계에서 “땅에서 넘어진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보조 큰스님의 가르침을 수행신조로 삼고 정진해 왔습니다.

오직 전법과 포교와 한 생각의 깨끗한 마음이 도량이라는 생각으로 공든 탑을 쌓아 정각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포교당을 개설하면서 삼보를 사랑하고 참회와 발원을 늘 행하며 부처님의 위선력에 힘 입어 업의 장애를 녹이고 위없는 도를 실천 현재 2만여명의 신도를 제접하고 있습니다.

수연중생(隨緣衆生)에게 자비만신(慈悲滿身)의 화신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능한 포교사는 자기자신의 헌신을 통해 촛불을 태우는 원대한 서원을 실천 넉넉한 보시와 뜨거운 인정을 베풀줄 아는 대보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이제 우리는 백천간두에서 진일보 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와 종교지도자들은 뼈를 깍는 고통과 환골탈퇴를 통해 거듭나, 국민의 실망, 국제사회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종단간의 화합과 문중간의 차별 등 현안의 난제를 해결해야 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전국불자들이 염원하는 “불교의 생활화” “강하고 당당한 불교”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과제를 시급히 완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시대가 요구하는 불교는 중생과 소통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간 불교의 종단 지도자들은 고통중생의 목소리를 듣고 중생들의 고통 치유를 위해 노력이 충분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종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전국불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불자들과 소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덕큰스님과 관계기관장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저는 ‘한불련’ 전국 중앙신도회장으로서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의 과제에 대비하는 일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야에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사바세계를 정토세계로 구현하고 희망찬 미래 조국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불자를 한결같이 섬기고 고통을 분담하는 아픔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실천하기 위해 종단 큰스님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자들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직접듣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저는 솔선수범하고 우리의 일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히 나투어 환희심을 일으키고 한국불교의 미래상을 구체화 하고 모든 불자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큰스님 그리고 관계기관장님 그리고 불자님들께서도 구태를 비판하며 닮아가기 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불련’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큰스님들께서 먼저 모범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큰스님, 관계기관장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어렵고 먼 길을 지치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한불련’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동체대비를 구현하고 함께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앙신도회 회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큰스님들과 불자님들과 함께 새로운 한국불교의 지평을 열어나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같이 굳게 다짐합니다.





△ 경남 사천 백천사 대웅전과 만덕전에 봉안된 나만바부처님. 백천사는 동양최대 와불부처님과 조상위패 봉안을 통해 중생구제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윤을암 ‘한불련’ 전국신도회 중앙 신도회장은 …

한국불교 진리홍포와 포교를 대표하는 전법사다.

그는 20년 전부터 척박한 한국불교 포교 풍토에 대천세계를 덮을 안목을 갖춘 정문정안의 눈 밝은 남자로 시대의 법기로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포교의 현장에서 “정법(正法)이 아니면 설혹 이롭다 할지라도 취(取)함이 없고 정도(正道)가 아니면 향후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발길조차 들여놓지 않는다. 이것이 윤을암 회장의 진면목이다”

이후 그는 포교의 현장에서 두타행의 화두를 놓고 용맹정진 불교의 혜명을 참구하고 몰두 끝에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고,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다는 자재의 견성을 깨치고 사(事)에서 사(邪)가 없고 이(理)에서 장(障)이 없이 이사(理事)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방무외(大方無外)한 출격장부(出格丈夫)로 자비망신(慈悲亡身)의 화신이 되어 수연중생(隨緣衆生)에게 넉넉한 보시와 뜨거운 열정으로 고통중생과 동거동락하며 선지식으로 상(相)없이 주고 승속을 초탈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奉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전국신도회 중앙회장 취임법회

불기2561(2017)년 정유년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종단최고위원회최고위원 임명장수여 및
전국신도회장 취임 대법회

일 시 :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 대한불교관음회조계종 백천사 경내
경남 사천시 백천길 326-2 (백천동) 백천사

▶ 제1부 취임법요식
▶ 제2부 어르신 위로잔치 및 호국영령 무주고혼 수륙천도대제





경남 사천 와룡산 백천사도량 ‘한민련’은 이곳 백천사 도량에서 전국신도중앙회장 취임식을 봉행한다.



전국신도회 윤을암 신임회장 약력

(사)전국장애인봉사회 총재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전국 협력위원장
대한불교관음회조계종 와룡산 백천사 신도회장
양산 녹야원 천불사 신도회장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총재
종교세계신문사 전국취재본부장

H.P 010-3845-1641 전국신도회장 윤을암
010-5808-6601 전국신도회 전국조직관리위원장 허세창
010-9396-2081 전국신도회장 부회장 김해주
010-8554-0465 전국신도회장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수

전화 02)2198-5022~4 (서울중앙본부 종무과)
051)907-8852 (백천사 부산종무소)